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2월 17일 (제123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홍우걸 목사

광야 같은 세월, 39년

언젠가 서울교회 메인 예배처소로 쓰고 있는 제1체육관에 행사가 있어서 제2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예배 사회를 담당하는 김종일 장로가 내게 말했다. “목사님은 정말 광야 길을 걸어가시네요.”

맞다. 나의 39년 목회 길은 정말 광야 길이었다. 철산리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인천 송의동으로, 올림픽공원으로, 그리고 다시 올림픽공원에서 지금의 88체육관으로, 그리고 다시 인천교회로 정처 없고 지나간 광야 길이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온 길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나를 따르는 성도들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문득 아브라함이 생각났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75년을 살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셨다. 집과 가족과 친지와 재산..., 그간 쌓아놓은 것들,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낯설고 황량한 광야로 가라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들로 삶이 채워지기를 바라셨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다봐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신 것도 바로 그것 아닐까.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목회 39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왔다. 누군가는 나더러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나더러 너무 느리다고 했지만, 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오직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의 길을 왔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듯이, 불기둥으로 덮히시고, 구름기둥으로 시원케 하셨듯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듯이 나와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나는 광야 같은 삶에 불평이 없다. 그것은 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전심전력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간다.

목사님의 성역 3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2월 22일이면 목사님의 성역 39주년, 예수중심교회 창립 39주년입니다. 30년 넘게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언제부턴가 12월이 되면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꿈꿔보지도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집회 현장에서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꿈을 꾸는 기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상으로, 글로 그 생생한 현장들을 기록할 수 있는 과분한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멋져 보이는 집회 현장의 모습보다도 더 마음에 새겨진 영상들은 지극히 작은 일을 대하는 목사님의 자세

폰을 들고 글을 쓰고 수정하고 하는 일이 젊은 사람도 한참 핸드폰을 들여다보려면 눈과 목이 아플 텐데, 눈이 짓무를 만큼 밤을 새워가며 그 작업을 1년 내내 수행하셨지요. 신문을 교정하고, 편집을 수정하는 일에 영화 벤허의 100번 시사에 대한 일화로 독려하신 일이야 이미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짧은 글이나마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 성도들을 살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가슴을 울리는 일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내용을 전달해드리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직접 전화를 걸어 몇 시간이고 그 성도가 기쁨을 되찾을 때까지 들어주고 권면하며 최

녹아있는 것을 보잖아요. 가르치는 스승이라기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지요. 그런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모든 참음과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행하며 사도의 표를 보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나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후12:11~12).

목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나나 내 가족의 안위와 유익을 앞세워서는 갈 수 없는 길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 거겠죠. 더군다나 교계로부터 이단이라 정죄 받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



목사님의 성역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당신에게 맡겨진 양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2016년 봄부터 꼭 1년 동안 카톡 메시지를 매일 성도들에게 발송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성도들의 문자 상담을 목사님께 전달하는 일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매일 밤이면 400자 이내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완성된 글을 매일 아침 대량 발송하곤 했지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0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목사님은 한밤중이라도 몇 번을 고치고 고쳐서 당신 마음에 이거다 하실 때까지 수정하기를 거듭하셨어요. 새벽 2시를 훌쩍 넘는 때가 많았지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핸드

선을 다하세요. 문자를 전달해드린 후 한참 있다가 ‘다 해결되었다. 2시간 넘게 전화해주었다. 교회를 떠날 뻔했는데 잡아주었다. 자살하려는 사람 살렸다.’ 등등의 메시지를 보내시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 양식이다. 이게 목회란다.’ 하십니다. 성도가 찾아와 간증하며 목사님께 감사하면 당사자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양식으로 에너지로 삼으시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을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며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빌4:1). 바울 서신 곳곳에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권면과 질타가

급을 당하셨으면서도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셨지요. 그 눈물과 인내의 길을 39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오신 목사님이기에 저는 그러한 종을 도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편안함을 찾으며 턱없이 합량 미달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신뢰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저 또한 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성역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KBS 아레나홀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계22:10~13)



천국의 상을 보고 충성되게 일하라

80이 넘으신 두 장로님이 건축헌금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셔도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겠지요?” 저는 “하다마다요. 사람들이 너무 천국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저축하면 필요할 때 찾아 쓰듯 하늘에 쌓은 것도 다 저축되어 있고,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마시고, 일할 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없다면 저나 장로님들이나 다 불쌍한 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졸업장만 받지 말고 우등상을 받는 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축복, 최고의 축복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얻습니다(롬10:10).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은혜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상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그러나 상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의 행위대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3:8). 어느 단체나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이치가 있고, 학계나 스포츠계, 연예계 등 각자 다 상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줍니다. 하늘의 상도 동일하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화형을 당하고, 목 베임을 당하고,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리고 목 마르며 헐벗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오직 상을 위해서 달려갔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그래서 저 역시 모함과 핍박의 점철된 세월을 기쁨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아무나 수석 졸업합니까? 아무나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땀니까? 아무나 승진합니까?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여러

분도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맡은 자리

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상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16:27).

여러분, 천국에는 참 다양한 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현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1:12),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5:2~4).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상 주고 싶으

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10:41~42)고도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대접한 것도 상을 주신답니다.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한 것도 다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가대에 서는 것, 안내를 서고, 헌금위원을 하는 것, 교사로 일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과부 두렵

같은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달란트로 봉사하는 것...

당연히 다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하지만, 70년 넘게 살아보니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다. ‘천국은 다르겠지.’ 하시지요? 아닙니다. 천국에도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다.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거든요. 천국에는 열두 문이 있습니다. 첫째 대문 안에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열두 문밖에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실감 나게 설명하자면, 조선시대에 궁궐 안에 사는 자가 있고, 사대문 안에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대문 밖에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판이했던 것처럼 천국도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함께 천국의 문지기로서 사는 것도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기왕이면 천국에서도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지은 집, 황금길, 황금마차, 세마포...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실컷 누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석을 즐

아하십니까? 루비? 사파이어? 어떤 꽃으로 장식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도 죽어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계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 집을 잘 짓기 위한 것이니 따로 칭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내세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을 더욱 사모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데서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히11:24~26)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했습니다. 그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운동선수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세상 것을 버릴진대, 하늘의 상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듯이 우리도 그날 받을 상을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고, 내일의 암탉을 키우는 자거든요.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바라보자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9:27). 심판대에서 먼저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것이고, 그다음에는 천국에 입성한 자들에게 계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온 자도 있고, 상을 받는 자가 있고, 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고, 더는 한 고을, 다섯 고을, 열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는 변경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날 공력을 시험하십니다. 열심히 했는지, 진실되게 했는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는지(마6:1~2) 다 판단하고 상을 주십니다(고전3:12~15).

우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받아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위해 살아봅시다(계3:11).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15:5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성역 39주년

“나는 지난 38년을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걸어왔고, 38년을 초지일관 기도로 살아왔다.”

작년 성역 38주년 수요일에 때 목사님께서 강단에 나오시면서 외치신 말씀이다. 나는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 귀에는 “나는 지난 38년을 초지일관 주님과 동행해왔고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들렸다.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다고 설교 중에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에녹처럼,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일생을 주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들, 최고의 인생을 보내는 순간들이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기쁨,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누림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삶 속에 넘쳐난다. 그래서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과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완주했다.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거침없이 가셨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시고 가셨다.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

리도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가야 한다.

새로 사들인 소를 보러 가고, 늘어난 밭에 일하러 나가며, 결혼 여행하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새로 사들인 소보다, 늘어난 밭보다, 신혼여행보다 그것들을 주신 분의 잔치 초청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역 39주년 역시, 나는 지금까지 39년을 초지일관 기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하실 것이다. 지난 39년 동안도 주와 동행하며 너무 행복하였고, 앞으로도 그 행복과 기쁨을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달려가시리라. 목사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 길을 뒤따라야 한다.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어리석은 에서 같은 자가 없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얻는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랄 수 없다. 바꾸면 안 된다. 양보하지 말자. 빼앗기지 말자.

예수님 뒤를 묵묵히 따라가시는 목사님 뒤를 우리 모두 열심히 따라가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길 소원하면서 나아가자.

목사님, 성령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교단소식 ::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나눔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동희 장로입니다.
인천교회의 장로, 피택장로 임직 이후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연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즉시 연회장을 찾는 중 가까운 곳에 모든 시설이 잘 갖춰어진 장소를 찾아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침 목사님의 성역 39주년에 즈음하여 그 의미가 깊기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하신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이사가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천국에서도 이런 파티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

에서 누리며 산다.’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이 전대와 칼을 가지시고 여한 없이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케이크 속에서 현금이 나오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목사님은 물론이고,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직분을 준 자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늘 심비에 새기고 열과 성을 다해, 아니 목숨을 다해 우리 모두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성역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동희 장로



:: 교단소식 ::

그대를 덕분이오

그대, 묵화 꽃 숨이불 단잠을 재웠고
그대, 한여름 모시 적삼 더위를 떨쳤지

그대를 희생 엮어 바다에 배 띄웠고
그대를 기도 덮고 세계에 씨 뿌렸지
그대들은 주님의 선물
주님이 주신 은혜요
그날 그 시
나는 주 앞에 묵화 꽃 그대를 내어놓으리다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마다치 않은 그대들을 내어놓으리다

그날 그 시
그대들도 주 앞에 날 내놓으시구려
칭찬과 면류관 씌워주시리라

朋友

사랑의 연탄 나눔

지난주 예수중심교회 서울청년부에서는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으로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청년들은 직접 성금을 모아 연탄을 구입하고, 산꼭대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8가구에 1,600여 장의 연탄을 날랐습니다. 연탄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도 함께 배달했고, 우리 교회신문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연탄 나눔행사가 더 뜻 깊었던 이유는 주일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하늘의 상을 언급하셨는데, 구제야말로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자 적금통장’이라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모르게 153구제운동을 통해 전쟁이 난 우크라

이나, 지진이 난 튀르키예, 시리아, 아이티 등에 구제현금을 보내기도 하고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는 성도들의 옷을 모아 컨테이너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구제 및 봉사정신을 보고 배운 우리 청년들이기에 연탄 선물을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구제는 구원할, 치료한 구(救)에 건넬, 도울 제(濟)로 어려움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내 교구, 내 지역, 내 친척, 내 지인 중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 섬겨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운 친절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서울교회 청년부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귀를 기울이세요 ::

그만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엔 세워둔 계획이 많았습니다. 하나, 점심에 가족들과 외식하고 오후 세 시까지 함께하기. 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책 읽기. 셋,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북토크 준비하기. 넷, 교회 신문을 초고 쓰기. 마감일이 어느덧 6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회사 업무가 몰리는 시즌이라 주말에 써놓아야 약속한 날짜를 지킬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토요일에 초고를 쓰고 일요일에 완성해 마감날 아침에 한 번 더 다듬은 후 보내야겠다고 계획했죠.

그날 수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얼 할지 촘촘히 적다 보니 마치 당장 일을 다 끝낸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아주 순조롭게 했죠. 가족들과 점심을 먹고 부모님 댁에서 낮잠을 거하게 잤습니다. 일어나니 오후 다섯 시. 저녁을 먹고 밖을 나서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선 꾸벅꾸벅 조느라 책은 펼쳐보지도 못했어요. 집에 와서는 느닷없이 겨울옷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어 넣고 세안하고 나니까 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왜 한 것도 없이 피곤하지? 가볍게 유튜브 한두 편만 보고 세워둔 세 번째 계획을 실행하리라 마음먹었는데, 한 편이 두 편 되고 두 편이 세 편 되고 세 편이 네

편 되고 그러다 잠이 들었더랬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었던 감정은 ‘한심하다’ 였어요. 미루는 습관, 유튜브를 오래 보는 습관,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중 압박감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잠을 자버리는 습관이 한심하게도 여전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달라진 한 가지가 있다는 것. 예전에는 제가 너무 한심해 온종일 자책하고 후회하며 보냈는데, 요즘에는 거울을 보며 저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새날이야. 다시 잘해보자. 해낼 수 있어.” 책망은 알아서 잔뜩 하고 있으니, 대신 나를 일으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후회되는 어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롭게 시작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근래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나 루틴이 무엇인지 글로 적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남겼죠. “만보 걷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는 자신을 응원하듯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잠깐 멈추고 쉬어도 돼. 그만두지만 않으면 돼.”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좋은 루틴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구멍 뚫린 날이 있더라도 계속 멈추지 않는 일, 계획대

로 하지 못한 어제의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응원하는 일, 해내지 못한 날보다 해낸 날을 점차 늘려가는 일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올해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3년 반이 걸렸어요. 매년 연말에 교회에서 나눠주는 성경읽기표에 따라 하루 1장씩 읽은 덕분입니다. 이제는 아침이면 성경부터 손에 들고 의자로 갑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4년간 지속된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전날 회의 준비를 못 끝냈거나 늦게 일어난 날에는 주기도문만 겨우 하고 후다닥 집을 나서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실망스럽죠. 그렇다고 온종일 자책만 하고 있을 순 없어요. 또다시 새롭게 찾아온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성경을 펼칩니다. 그만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2023년에 세워둔 계획, 혹시 이루지 못했더라도 실망은 조금만 하세요. 지나간 나날을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해니까요. 그만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신은혜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님을 향한 노래 ::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배 순서 중 성가대 찬양 후에 워십팀의 울동이 있습니다. 워십팀은 단 옆의 계단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무대에 섭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배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의 한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중반을 넘어서자 목사님께서 손짓으로 워십팀을 단 아래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처음 봤을 땐 그냥 지나갔었고 매번 그러시는 것을 보고도 ‘별 차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같은 장면을 보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습관이 되셨구나!’ 기도원 집회나 해외 집회, 평화통일 기도성회 같은 대형 집회만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주 드리는 주일에배의 한 순서까지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다시금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기도처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전반적인 모든 공사를 담당하셨는데, 혼자 모든 일을 직

접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전혀 밀리지 않고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준비에 있었습니다. 그날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장로님은 전날 미리 준비하셨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재들은 며칠 전에 미리 주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에 전혀 지장이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음공사만 따로 담당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방음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미리 사다 놓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사다 놓지 못한 겁니다. 방음공사를 하는 당일에 부랴부랴 자재를 사오느라 오전에는 아무 작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루에 끝낼 방음 작업이 이틀에 걸쳐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유일한 차이점은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했나, 하지 않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한 자들은 슬기롭다 칭찬을 받고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하다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돌아서셨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지으실 때 5일 동안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어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미리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요셉도 풍년 때에 흉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여서 애굽 백성과 근방의 백성들까지 구원할 수 있었고,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의 선전들과 목사님을 본받아 이 땅의 삶과 영생의 삶 모두 미리 준비하시어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슬기롭다 칭찬받는 예수중심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호민 전도사

사랑하는 목사님께!

그동안 쉽 없이 경주하는 전차처럼 달려오신 목사님의 성역 39주년! 그 가운데 목사님과 늘 함께하는 신학생의 삶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시 시작된 신학교는 열여섯 과목이라는 아름다운 차림새로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처럼 원고 없이 설교하기 위해 설교를 훈련받고, 목사님처럼 말씀에 통달한 자가 되기 위해 신구약개론, 조직신학, 역사서를 교육받습니다. 목사님처럼 위대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 모세를 배우고(모세오경), 바울을 배웁니다(바울서신). 목사님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 한국교회사, 초대 교회사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배웁니다.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으로 영적 치유를 무장합니다. 목사님처럼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는 종이 되기 위해 문서 선교를 배우고, 목사님처럼 세계선교하는 종이 되기 위해 선교학으로 목사님의 선교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생생한 목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목회성장학은 신학생들을 늘 발전하게 만듭니다.

이런 신학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수업을 하며, 교수조차 강의를 받지 않고 수업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중심제자신학원에서 강의하기를 원하면 오히려 강사료를 내고 강의하라고 하십니다. 또, 이런 신학교 이사장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신학교 수업을 모니터하시며 모든 수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십니다. 세상에는 교육청에, 장학사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 일을 하지만 그 바쁜 신 가운데서도 모든 수업을 컨트롤하십니다. 심지어 교수들에게 친히 메시지를 보내어 ‘교수님! 오늘도 이 수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이러니 신학생들이 매시간 수업을 들을 때마다 사명감과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신학생이 되어보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종은 역사 이래 없었으며 당신이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자이기에 본인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대로 사는 것을 넘어 ‘삶 자체가 설교’이신 목사님! 목사님의 성역 39주년을 축하드리며 지금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신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목사님이 베풀어주신 노랑진 신학교 강의실, 목사님이 지도해주신 신학생 급식 수련회, 목사님과 같이 먹은 점심 도시락, 목사님과 함께한 기도원 족구 시간까지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엘리트 신학원 교육을 받은 우리, 목사님 같은 참 목자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송현혜 생도